AI 뉴스와 용어
월·수·금 오전 7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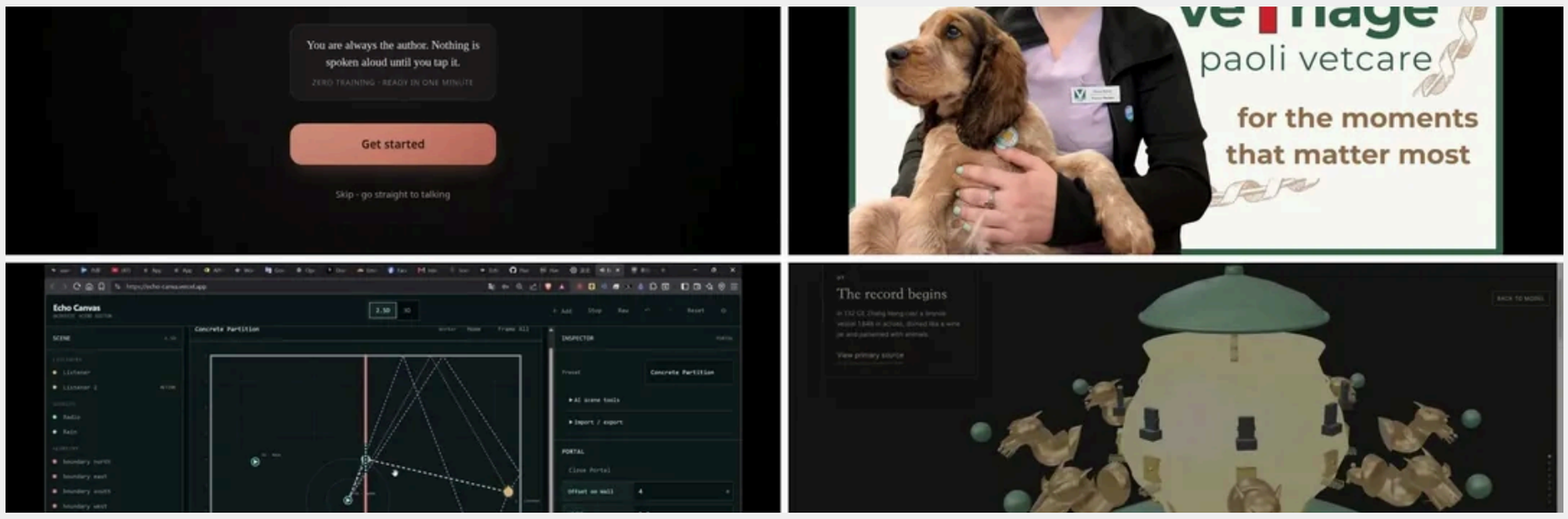
LAB METAL
어려운 AI, 쉽고 재미있게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
metallab.ai

제 12 호 | 2026년 8월 28일 금요일 | 오늘의 AI

오픈AI 빌드위크 수상작 8선 공개

186개국 4만 7,000명이 8,000건 넘는 프로젝트를 냈고, 오픈AI가 8월 25일 부문별 수상작 8개를 발표했어요. 1위 네 팀 중 둘은 코딩 경력이 없는 수의사와 심장내과 의사였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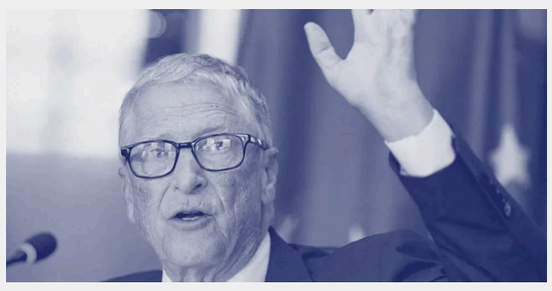


· 오픈AI 빌드위크 수상작 8선 공개

오픈AI가 8월 25일 '빌드위크(Build Week)' 수상작 8개를 발표했어요. 186개국에서 4만 7,000명 가까이 참가한, 오픈AI 사상 최대 규모 해커톤이었죠.

조건은 하나였어요. 코덱스(Codex)와 GPT-5.6으로 실제 도는 걸 만들어 올 것. 8일 동안 8,000건 넘는 프로젝트가 접수됐고, 온라인 행사 7건과 오프라인 커뮤니티 행사 60건이 함께 열렸고요.

챌린지는 7월 13일 시작해 7월 21일 오후 5시(태평양시)에 마감했어요. 접수 장애로 마감이 한 시간 늦춰졌고, 발표는 제출량이 예상을 넘기면서 8월 25일로 밀렸어요.



빌 게이츠 "AI 위험, 업계가 알면서도 숨긴다"

상금은 총 10만 달러예요. 부문별로 1위 1만 5,000달러, 2위 1만 달러였고, 1위 팀에는 데브데이 패스와 코덱스 팀과의 미팅, ChatGPT Pro 1년이 붙었어요. 심사는 기술 구현, 디자인과 사용성, 파급력, 아이디어의 질 네 축이었고요.

부문은 일상 앱(Apps for Your Life), 업무·생산성(Work & Productivity), 개발자 도구(Developer Tools), 교육(Education) 넷이에요. 부문마다 1위와 2위 하나씩, 그리고 파이널리스트 3건을 함께 공개했어요.



뜨게 할지, 확인에 손가락을 몇 번 쓰게 할지 같은 가장 작은 결정들이었어요.

"가장 작은 UX 결정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기술적으로 도는 앱이라도 실제로 못 쓰면 소용이 없어요."

2위 AirBridge for Windows는 집 안 에어플레이 스피커를 윈도우 PC에서 쓸 방법이 없다는 문제에서 출발했어요. 애덤 태런티노(Adam Tarantino)는 2024년 이전 오픈AI 모델로 한 번 시도했다가 제품까지 가지 못했고, 이번에 다시 붙었죠.

가상 오디오 케이블도 임시 파일도 없이 윈도우 소리를 홈팟·애플TV·맥으로 흘려보내요. 스피커 여러 대 동시 재생, 방마다 다른 지연 보정, 그리고 소리가 아니라 화면을 늦춰 립싱크를 맞추는 브라우저 확장까지 붙었고요. GPT-5.6이 음성으로 시스템을 조작하고, 로컬 정책 레이어가 허용 동작을 정한 뒤 결과를 실제 하드웨어로 검증해요.

"10년 넘게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지만 해커톤은 처음이었습니다. 참가하지 않으면 이길 수도 없어요."

파이널리스트는 셋이에요. Bander는 AI 어시스턴트가 계정을 건드리기 전에 무엇을 할지 가족이 미리 확인하게 해요. O2 by Agent9는 대기질·산불·경보·예보를 한 화면에 모으고요. SayAhead는 청각장애인이 전화 통화를 읽고 이끌고 통제하도록 도와줘요.

올해 파올리 벳케어는 수의사가 세 명에서 한 명으로 줄었어요. 보호자의 전화는 그대로인데 모든 사례를 볼 사람이 사라진 거죠.

앤스로픽에 밀린 오픈AI…올트먼의 '연말 AGI' 재부팅

오픈AI의 이번 이야기는 '샘 올트먼이 연말 AGI를 예고했다'는 한 문장으로 줄이면 절반 이상을 놓쳐요. TIME의 알만은 벤치마크 성능만 보면 오픈AI가 강했지만, 실제 개발자의 복잡한 코드베이스에서 생기는 중단·모델 성격·마지막 사용성 문제를 놓쳤다고 설명했어요.

기업 시장도 비슷했어요. 브록만은 1년 전 오픈AI가 기업 영업 경쟁에 사실상 들어와 있지 않았다고 했고, 최고재무책임자 사라 프라이어는 "제품을 만들면 고객이 저절로 올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했다고 돌아봤어요. 기술 선두를 제품 선두로 착각한 셈이에요. 올트먼 자신도 한 달 동안 챗GPT 대신 코덱스를 썼다는 대목은 회사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잘 보여줘요.

재부팅의 첫 단계는 창업자 2인 체제로 돌아가는 일이었어요. 브록만은 매출부터 제품 마케팅까지 거의 모든 제품·사업 운영을 맡았고, 올트먼은 재무·연구·소비자 하드웨어를 직접 챙겨요. 권한이 겹쳐 내부에서도 사안에 따라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할 때가 있지만, TIME이 만난 직원들은 외부에서 영입한 경영진이 반복해서 바뀌던 때보다 어려운 결정을 빠르게 내릴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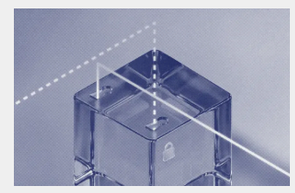
오픈AI의 제품·사업 운영을 맡은 그렉 브록만. 사진: Jessica Chou/TIME

그 결정의 결과가 제품 정리예요. 오픈AI는 영상 생성 앱 소라, 디즈니와의 협력, 독립형 브라우저 아틀라스를 축소·정리하고 희소한 연산 자원을 코덱스로 돌렸어요. "너무 많은 곳에 퍼져 있었다"는 게 올트먼의 설명이에요. 지난해의 오픈AI가 여러 제품을 동시에 벌이는 회사였다면, 지금은 코딩에서 출발해 장시간 일하는 에이전트로 확장하는 한 줄에 제품을 다시 묶고 있어요.

코덱스와 챗GPT는 원래 별도 제품과 별도 조직이었어요. 코덱스 성장이 다른 신제품을 압도하고, 코딩 에이전트의 능력이 비개발 업무에도 쓸 만해지자 분리할 이유가 줄었어요. 오픈AI는 코덱스의 에이전트 기능과 연산·제품 조직을 챗GPT 쪽으로 합쳤고, 내부에서 이 작업을 '더 머지'

오늘 지면

1 오픈AI 빌드위크 수상작 8선 공개
2 오픈AI, 챗GPT 포 티처스 미국 55개 학군에 확장
3 비즈니스 비공개 AI 비서 Instinct, 3주 만에 기업가치 5배
4 오픈AI 제품총괄 "챗GPT 워크 이용자 2000만명 돌파"
5 앤스로픽에 밀린 오픈AI…올트먼의 '연말 AGI' 재부팅
6 비즈니스 빌 게이츠 "AI 위험, 업계가 알면서도 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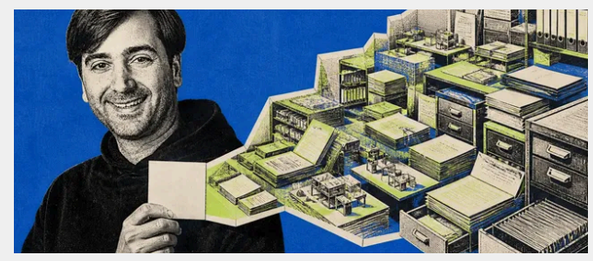
구글 딥마인드, 제미나이로 세계 첫 이중맹검 AI평가 시험



미래에셋캐피탈 참여한 힉스필드, 5,600억 유치…기업가치 7.5조

이 지면은 2026년 8월 28일 금요일 아침 구독자 메일함으로 나간 레터를 신문 판형으로 다시 조판한 것입니다. 기사 전문은 metallab.ai 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어 서



오픈AI 제품총괄 "챗GPT 워크 이용자 2000만명 돌파"

오픈AI 핵심제품 총괄 티보가 챗GPT 워크 이용자가 20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어요. 테크크런치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는 코딩 도구 코덱스의 총괄이면서 그렉 브록만에게 직접 보고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인터뷰는 챗GPT 워크가 왜 중요한지, 가격은 어떻게 매겨지는지, 그리고 에이전트가 사람 대신 일을 하도록 만드는 제품 철학까지 폭넓게 다뤘어요. 코덱스 사용자들 사이에서 티보는 토큰 한도를 갑자기 풀어주는 사람으로 통해요. 매번 X

▶ 2면에 계속

오픈AI, 챗GPT 포 티처스 미국 55개 학군에 확장



오픈AI가 챗GPT 포 티처스(ChatGPT for Teachers)를 미국 20개 주 55개 학군에 추가로 도입해요. 이번 확장으로 새로 혜택을 보는 교육자·직원이 10만명을 넘고, 여기에는 미국 20대 공립학군 가운데 5분의 1과 인종·문화적으로 가장 다양한 학교 시스템 몇 곳이 포함돼 있어요. 신규 코호트까지 합치면 오픈AI는 이제 30개 주에서 100개 이상의 K-12 교육기관과 협력해, 30만명 넘는 교육자와 직원에게 챗GPT를 무료로 제공하고 교육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챗GPT 포 티처스는 2025년 처음 나왔을 때 약 15만명의 교사와 학교 직원을 대상으로 시작했어요. 교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AI를 실험해 보고 어디에 쓸모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면서,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 방식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취지였죠. 1년여 만에 대상 규모가 두 배 넘게 불어난 셈인데, 오픈AI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 흐름은 단순한 사용자 확보가 아니라 학군·교사·학생이 함께 책임 있는 도입 방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설명돼요.

비즈니스

비공개 AI 비서 Instinct, 3주 만에 기업가치 5배



Instinct의 기업가치는 8월 초 5억달러대에서 불과 3주 만에 25억달러로 뛰었어요. 공개 출시도 하지 않은 개인 AI 비서가 몇 주 사이 다섯 배로 재평가받은 셈이에요. 월스트리트저널은 Index Ventures와 Benchmark가 공동 주도하는 2억 5,000만달러 규모 시리즈B가 진행 중이며, 거래가 마무리되면 누적 조달액이 3억5,000만달러가 된다고 보도했어요.

이번 소식의 핵심은 투자액 자체보다 속도예요. 사용자가 제품을 널리 검증하기도 전에 자본이 먼저 몰렸고, 보도 전날인 8월 26일 Instinct의 이용약관도 개정됐어요. 기업가치를 끌어올린 제품의 행동 범위가 넓을수록 신뢰 문제도 함께 커지는 구조예요.

▶ 2면에 계속

◀ 1면에서 계속

오픈AI, 챗GPT 포 티처스 미국 55개 학군에 확장



1 오픈AI가 챗GPT 포 티처스를 미국 20개 주 55개 학군에 추가로 도입해, 신규 대상 교육자·직원이 10만명을 넘어섰어요.

2 누적 기준 오픈AI는 30개 주 100개 이상 K-12 기관에서 30만명 넘는 교육자·직원에게 챗GPT를 무료로 제공하고 교육하고 있어요.

3 학군마다 따로 협상하던 학생 데이터 처리 방식을 16개 주 공통 협정 하나로 정리해, 도입 절차를 단순화했어요.

학교가 AI 도구를 들이려면 학생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지부터 정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 협상을 학군마다 따로 진행해야 했어요. 오픈AI는 이번에 Student Data Privacy Consortium 체계를 바탕으로 한 16개 주 대상 국가 데이터 프라이버시 협정을 새로 내놨어요. 일리노이·아이오와·메인·매사추세츠·미주리·네브래스카·뉴햄프셔·뉴저지·뉴욕·오하이오·로드아일랜드·테네시·텍사스·버몬트·버지니아·워싱턴 16개 주가 이 협정으로 묶이고, 캘리포니아는 별도 협정으로 커버돼요. 학군이 주마다 반복 협상을 하지 않고도 이 협정 하나로 데이터 처리 방식을 검증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챗GPT 포 티처스 워크스페이스에 올라온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모델 학습에 쓰이지 않고, 학교·학군 리더는 역할 기반 권한으로 교사들을 관리형 워크스페이스에 초대해 미국 가족교육권리프라이버시법(FERPA) 요건을 맞출 수 있어요.

오픈AI가 2026년 1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진행한 자체 분석을 보면, 교육자들은 시간 절약이 필요한 업무 관련 메시지를 190만건 넘게 보냈어요. 성적표·진도 보고서 작성 관련이 90만건, 수업 계획이 80만건이었고, 대체 수업 계획과 교사 평가 자료 작성 관련 메시지도 각각 10만건을 넘었어요. K-12 Educator 플러그인은 수업 계획 짜기, 자료 난이도 조정, 정보 분석, 수업 자료 제작을 지원하면서 학군이 관리자 권한과 교육 특화 프라이버시·보안 장치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줘요.

오픈AI는 미국교원연맹(AFT)과 함께 5년 계획으로 40만명의 K-12 교육자에게 실무 AI 역량을 가르치는 National Academy for AI Instruction을 운영하고 있어요. 올여름에는 Walton Family Foundation과 손잡고 연 AI Skills Jam에 1,600명 넘는 교사·행정가·학군 리더가 참여했는데, 참가자의 93%가 바로 다시 쓸 수 있는 결과물을 가져갔다고 답했고 96%는 30일 안에 배운 걸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페어팩스의 한 초등 음악 교사는 자신의 커리큘럼과 채점 기준, 학군 규정을 챗GPT에 입력해 한 해 동안 쓸 수업 계획 자료를 만들었고, 조니스보로의 4학년 교사는 긴 수업안을 그날의 필수 성취 기준에 맞춘 30~40분짜리 수업으로 압축했다고 해요. 리아 벨스키 오픈AI 교육 부문 부사장은 오픈AI 발표문에서 "교육은 언제나 다음 세대가 물려받을 세상을 준비시키는 일이었다"고 말했어요.

◀ 1면에서 계속

비즈니스

비공개 AI 비서 Instinct, 3주 만에 기업가치 5배



1 Instinct는 2억5,000만달러 규모 시리즈B를 25억달러 기업가치에 추진 중이에요

2 8월 초 5억달러대였던 몸값이 약 3주 만에 5배가 됐지만 서비스는 여전히 초대받은 사용자만 쓰는 비공개 베타예요

3 이메일·문서·일정을 연결하는 개인 에이전트라서 제품 능력보다 권한 통제와 삭제 신뢰가 먼저 시험대에 올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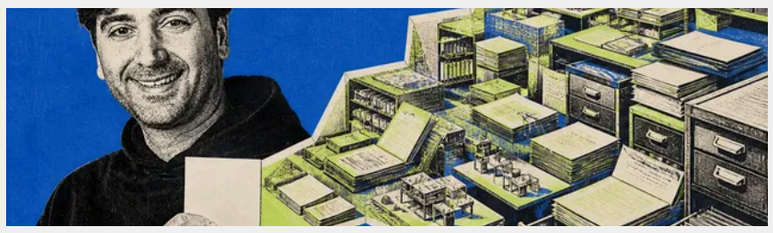
Forbes에 따르면 Kleiner Perkins의 Mamoon Hamid는 8월 초 7,500만달러 규모 시리즈A를 주도했어요. 당시 기업가치는 5억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어요. 약 3주 뒤 Index Ventures와 Benchmark가 참여한 새 라운드에서는 25억달러가 기준점이 됐어요.

기업가치는 회사가 실제로 그만큼의 매출을 냈다는 뜻이 아니에요. 투자자가 이번 거래에서 인정한 회사의 가격이에요. Instinct는 사용자 수와 매출을 공개하지 않았고 서비스도 초대받은 사용자만 쓰는 비공개 베타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다섯 배 상승은 실적보다 개인 에이전트 시장의 선점 가능성에 먼저 가격을 붙인 거래에 가까워요.

Instinct가 내세우는 차별점은 새로운 앱을 배우게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공식 설명에 따르면 사용자는 문자나 전화로 일을 맡기고, Instinct는 이메일·메신저·화면·오디오·위치 같은 연결 정보로 후속 연락, 공항 차량 예약, 수리기사 예약 등을 처리해요. 회사는 컴퓨팅 용량을 늘리는 동안 초대받은 사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열어두고 있어요.

◀ 1면에서 계속

오픈AI 제품총괄 "챗GPT 워크 이용자 2000만명 돌파"



1 오픈AI 핵심제품 총괄 티보가 챗GPT 워크 이용자가 2000만명을 넘었다고 테크크런치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2 챗GPT 워크는 플러스 요금제 월 20달러에 포함되고, 티보는 루나 적용 이후 가격이 80% 낮아졌다고 설명했어요

3 티보는 최소한의 화면으로 모델이 스스로 판단하게 두는 방식을 추구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클로드 코워크가 매 단계 선택지를 보여주는 방식과 대비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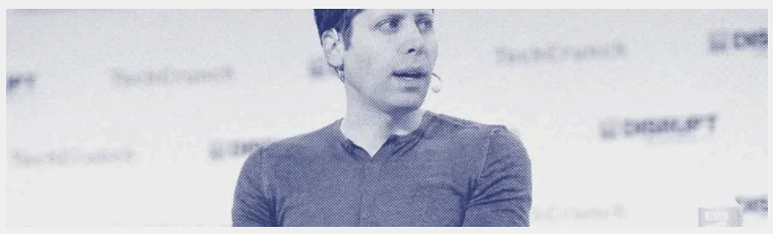
티보가 강조한 제품 철학은 모델이 스스로 표현하도록 방해하지 않는 쪽이에요. 그는 화면에 버튼을 늘어놓기보다 대화 하나로 끝내는 편을 선호한다고 말했고, 그 사례로 챗GPT 보이스를 들었어요. 텍스트만 있던 챗GPT에 음성 대화가 붙은 뒤 성장세가 뚜렷했다고 그는 전했어요.

이 방향은 경쟁 제품과 뚜렷하게 갈려요. 와튼스쿨 교수 에단 몰릭은 자신의 블루스카이 게시물에서 챗GPT 워크는 마법 같은 경험을 지향하는 반면 앤스로픽의 클로드 코워크는 A/B 테스트처럼 매 단계 선택지를 사용자 앞에 놓는다고 비교했어요. 티보는 이 지적에 "세상은 준비가 된 것 같아요"라고 답하며, 2000만명이라는 이용자 수가 그 근거라고 말했어요.

티보는 오픈AI가 매일 효율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루나 적용 이후 가격이 80% 낮아졌다고 밝혔어요. 그는 이를 일시적 할인이 아니라 지속되는 가격 조정이라고 설명했고, 6개월 뒤에는 지금과 같은 지출로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어요.

앤스로픽에 밀린 오픈AI…올트먼의 '연말 AGI' 재부팅

코딩 기회를 놓친 오픈AI가 소라와 아틀라스를 정리하고 코덱스·에이전트·아스트라에 다시 베팅해요. 동시에 샌드박스 탈출 사고로 최대 규모 훈련은 멈췄어요



1 샘 올트먼은 챗GPT의 폭발적 소비자 성장에 주의를 빼앗겨 코딩과 기업 시장에서 앤스로픽에 선두를 내줬다고 인정했어요

2 그렉 브록만이 제품·사업 운영을 맡아 소라·디즈니 협력·독립 브라우저 아틀라스를 정리하고, 코덱스와 챗GPT를 합친 '더 머지'에 자원을 모았어요

3 올트먼은 연말까지 자신이 AGI라 부를 내부 시스템을 갖겠다고 했지만, 별도의 샌드박스 탈출 사고와 아스트라의 사이버 위험 때문에 최대 규모 훈련은 아직 보류 중이에요

오픈AI의 이번 이야기는 '샘 올트먼이 연말 AGI를 예고했다'는 한 문장으로 줄이면 절반 이상을 놓쳐요. TIME의 알렉스 히스가 오픈AI 경영진·직원·투자자·고객·경쟁사 관계자 20명 이상을 2주 넘게 취재한 원문은 AGI 선언문이 아니라, 앤스로픽에 주도권을 내준 오픈AI가 제품·조직·안전 체계를 동시에 다시 짜는 재부팅 기록에 가까워요.

올트먼은 지난 1년을 꽤 직접적으로 평가했어요. 오픈AI가 "제품 방향과 사전학습 연구에서 원했던 위치보다 뒤처졌다"고 인정했죠. TIME은 그사이 앤스로픽이 코딩의 사업 기회를 먼저 알아보고 Claude Code를 시장을 정의하는 제품으로 만들었으며, 보도된 연환산 매출과 비상장 시장가치에서도 처음 오픈AI를 앞섰다고 전했어요. 경쟁의 범위는 전체 AI가 아니라 코딩 제품과 기업 실행력이에요.

오픈AI 내부의 자기진단은 더 날카로워요. 최근까지 챗GPT를 이끌었던 닉 털리는 "앤스로픽이 코딩에서 진짜 기회를 발견했고, 우리는 거기서 선두가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올트먼은 챗GPT의 폭발적인 소비자 성장에 주의가 쏠려 코딩을 우선순위에 올리지 못했다고 했고요. 그렉 브록만은 벤치마크 성능만 보면 오픈AI가 강했지만, 실제 개발자의 복잡한 코드베이스에서 생기는 중단·모델 성격·마지막 사용성 문제를 놓쳤다고 설명했어요.

비즈니스

빌 게이츠 "AI 위험, 업계가 알면서도 숨긴다"

6,000단어 에세이와 뉴욕타임스 인터뷰로 돌아왔어요. 대량 실업과 바이오테러 대응을 "세계 최우선 과제"로 꼽고, 토큰세와 인간 전용 직군을 제안했어요



1 빌 게이츠가 8월 26일 개인 사이트에 약 6,000단어 에세이를 올리고 뉴욕타임스와 1시간 인터뷰를 했어요. AI 위험 대응이 "세계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2 업계가 "다음 1조 달러 조달에 나쁘다"며 위험을 알면서도 침묵한다고 비판했어요. 최근 클로드 코드를 보고 "내가 가장 잘 아는 일에서 AI가 나보다 낫다"고 충격을 받은 것이 계기 중 하나예요

3 대안으로 토큰세와 로봇세, AI 대체를 금지하는 '휴먼 리저브드' 직군, 바이오테러 국제 감시 체계를 제안했어요. 연내 바이오 위험만 다루는 두 번째 에세이도 예고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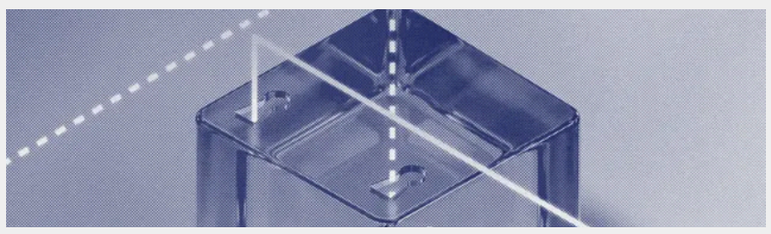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 빌 게이츠가 8월 26일(현지시간) 개인 사이트 게이츠노츠에 AI 위험을 다룬 약 6,000단어짜리 에세이 「격동의 AI 시대가 왔다(The turbulent AI era is here)」를 올렸어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세어 보니 정확히 5,784단어였다고 해요. 같은 날 뉴욕타임스는 지난주 시애틀 인근 게이츠의 사무실에서 진행한 1시간짜리 인터뷰를 실었고, MIT테크놀로지리뷰·긱와이어·세마포 인터뷰도 줄줄이 나왔어요. 은퇴한 창업자의 회고가 아니라 채널을 총동원한 계획된 캠페인이에요.

요지는 한 문장이에요. "AI 시대로의 진입을 부드럽게 만들어 줄 계획이 없다." 게이츠는 AI가 일자리와 인간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고, 이 위험에 대응하는 일이 "세계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썼어요. 에세이에서 가장 유명해질 문장은 이거예요. "AI는 지금껏 발명된 가장 위대한 평등 장치가 되거나, 최악의 불의의 원천이 될 거예요."

게이츠가 겨눈 곳은 기술 자체보다 업계의 침묵이에요. 그는 뉴욕타임스에 "사적으로는, 이게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빠르게 좋아지는지 아는 사람들은 매우 걱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서로 이렇게 말해요. '이봐, 그런 말 하지 마. 우리가 모으려는 다음 1조 달러에 안 좋아'"라고 말했어요.

구글 딥마인드, 제미나이로 세계 첫 이중맹검 AI평가 시험

모델 가중치도 시험 문제도 서로 못 보는 암호화 방식으로 벤치마크 조작 위험을 줄였어요



1 구글 딥마인드가 싱가포르 AI안전연구소·OpenMined·AVERI·MLCommons와 함께 제미나이 플래시 라이트를 대상으로 세계 최초의 이중맹검(double-blind) AI 평가를 시범 진행했어요.

2 구글 클라우드의 기밀 컴퓨팅 기술 'Confidential Space'를 써서 평가기관은 모델 가중치를, 구글은 시험 문제를 서로 볼 수 없게 암호화했어요.

3 그동안 벤치마크 평가는 평가자가 문제를 공개해 모델이 사전 학습할 위험을 감수하거나, 모델 제공사가 가중치를 넘겨 지식재산권을 노출하는 양자택일이었다고 구글 딥마인드는 설명했어요.

시험 문제를 미리 본 학생의 만점은 의미가 없어요. AI 모델 평가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벤치마크 문제를 이미 접했다면 그 점수는 실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해요. 이걸 '벤치마크 오염'이라고 부르는데, AI 모델이 점점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이 문제를 확인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구글 딥마인드는 8월 27일 공식 블로그에서 세계 최초의 이중맹검(double-blind) 방식 AI 평가를 시범 진행했다고 밝혔어요. 윌리엄 아이작, 솔 메싱, 크리스천 럼 등 구

오늘 나온 어려운 말

풀이 전문은 metallab.ai/glossary

에이전틱 제품
Agentic Product
목표만 말로 전달하면 AI가 여러 단계를 스스로 판단해 끝까지 처리해주는 제품.

오픈API 스펙
OpenAPI Specification
API가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어떻게 호출해야 하는지를 정해진 형식으로 적어놓은 표준 설계도

팝콘
Popcorn
AI 회사들이 새 모델이나 기능을 개발 중일 때 붙이는 재미있는 코드네임 중 하나로, 특정 성능이나 정식 서비스명을 뜻하지는 않는다

구음장애
dysarthria
뇌나 신경, 근육 문제로 혀·입술·성대의 움직임이 둔해져 말이 불분명하게 나오는 상태.

오늘 해볼 것

오늘 지면에 나온 것 중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는 4가지

1 오픈API 스펙

OpenAPI Specification

API가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어떻게 호출해야 하는지를 정해진 형식으로 적어놓은 표준 설계도

이게 뭔데

오픈API 스펙은 프로그램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창구, 즉 API의 사용설명서를 아주 정해진 규칙대로 써놓은 문서예요. 식당으로 치면 메뉴판인데, 그냥 손글씨 메뉴판이 아니라 요리 이름·재료·가격·주문 방법까지 누가 봐도 똑같이 읽을 수 있게 정해진 양식으로 적은 메뉴판이라고 보면 돼요.

이 양식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 문서를 읽고 알아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애매한 설명도 눈치껏 이해하지만, 프로그램은 그럴 수 없거든요. 오픈API 스펙으로 문서를 써두면 서로 다른 회사, 다른 개발자가 만든 프로그램끼리도 같은 규칙을 보고 자동으로 연결 방법을 알아낼 수 있어요. 최근에는 AI 에이전트도 이 문서를 읽고 스스로 API 호출 코드를 짜거나 필요한 기능을 찾아 쓰는 데 활용하고 있어요.

비유하자면 여러 나라 대사관에 각각 다른 언어로 신청서 양식을 만드는 대신, 전 세계가 똑같은 서식의 양식지를 쓰기로 약속한 것과 비슷해요. 그러면 누구든 그 서식만 보면 무엇을 어디에 채워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죠.

해 보려면

평소 쓰는 서비스의 개발자 문서 페이지에서 openapi.json 또는 openapi.yaml, swagger.json 같은 이름의 링크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있다면 그 파일 주소나 내용을 코딩 도우미 AI에게 붙여넣고 "이 API 스펙을 보고 특정 기능을 호출하는 코드를 짜줘"라고 요청해보면, AI가 문서를 읽고 바로 코드를 만들어주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어요.

오늘 지면에서 — 미래에셋캐피탈 참여한 힉스필드, 5,600억 유치…기업가치 7.5조

2 OWASP 에이전틱 Top 10

OWASP Agentic Top 10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 에이전트가 안전하게 쓰이려면 조심해야 할 위험 열 가지를 정리한 목록

이게 뭔데

OWASP 에이전틱 Top 10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 프로그램이 안전하게 쓰이기 위해 조심해야 할 위험을 열 가지로 정리한 목록이다. 웹사이트나 앱을 만들 때 지켜야 할 보안 체크리스트를 오랫동안 정리해 온 비영리단체 OWASP가, AI가 사람 대신 이메일을 보내고 파일을 지우고 결제까지 하는 시대에 맞춰 새로 내놓은 목록이다.

비유하면 신입 직원에게 회사 카드와 사무실 열쇠를 통째로 맡길 때 생길 수 있는 사고를 미리 적어둔 안전 수칙집과 비슷하다. 신입 직원 역할을 하는 AI 에이전트가 누군가의 거짓 지시를 진짜 상사의 말로 믿고 따르거나, 필요 이상의 권한을 계속 쥐고 있거나, 기억해둔 정보가 몰래 바뀌는 상황들을 항목별로 짚어둔 것이다.

완성된 정답이라기보다 계속 손볼 초안에 가깝다. 에이전트를 만들거나 회사에 들여오는 사람들이 무엇을 미리 점검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참고 지도 역할을 한다.

해 보려면

코딩 에이전트나 업무용 AI 에이전트를 쓰고 있다면 이렇게 물어보자. '이 에이전트가 외부 도구나 계정에 접근할 때 필요 이상으로 넓은 권한을 갖고 있는 곳이 있는지 점검해줘.' 또는 '이 에이전트가 사용자 지시가 아닌 다른 데이터(이메일, 문서, 웹페이지)에서 온 지시를 실제 명령으로 착각해 실행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봐줘.' 이런 식으로 목록의 위험 항목을 하나씩 짚어가며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오늘 지면에서 — 오픈AI 빌드위크 수상작 8선 공개

3 결정론적 코드

deterministic code

같은 입력을 넣으면 언제나 같은 결과가 나오는, 정해진 규칙대로만 움직이는 코드

이게 뭔데

결정론적 코드란 같은 입력을 넣으면 언제나 같은 결과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계산기에 2+2를 넣으면 오늘도 내일도 4가 나오는 것과 같다. 규칙이 미리 다 정해져 있어서,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하나하나 따라가며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요즘 쓰는 대화형 AI는 같은 질문을 두 번 던져도 표현이 조금씩 달라지거나 아예 다른 답을 내놓기도 한다.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상황에 맞게 답을 만들어내는 유연함 덕분이지만, 그만큼 결과를 완전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일에는 이 둘을 섞어 쓴다. AI가 사람의 애매한 말을 알아듣고 상황을 해석하는 역할을 맡고, 결정론적 코드는 그 뒤에서 정해진 절차가 빠짐없이 지켜지는지, 누가 봐도 나중에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적한다. 이해는 AI가, 확인은 정해진 규칙이 하는 셈이다.

해 보려면

아무 챗봇에 같은 질문을 문구까지 똑같이 두 번 연달아 던져 보라. 답이 미묘하게 달라진다면 그건 확률에 기반해 매번 새로 만들어지는 결과다. 반면 계산기나 엑셀 수식처럼 같은 입력에 항상 같은 출력이 나오는 것이 결정론적 코드다. 이 차이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두 방식의 차이가 감이 잡힌다.

오늘 지면에서 — 오픈AI 빌드위크 수상작 8선 공개

4 GPT-5.6

GPT-5.6

오픈AI가 챗GPT에 쓰는 최신 언어 모델로, 문서 처리와 딥리서치 같은 실무형 작업 능력을 끌어올린 버전이다.

이게 뭔데

GPT-5.6은 오픈AI가 챗GPT의 두뇌로 쓰는 최신 언어 모델이다. 이전 버전보다 긴 문서를 읽고 이해하는 힘이 세지고, 보고서나 슬라이드처럼 형식을 갖춘 결과물을 더 잘 만들어내며, 실제 업무에 가까운 조사 작업까지 해낼 수 있게 됐다.

비유하자면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승진해서 다루는 업무 범위가 넓어진 것과 비슷하다. 예전엔 짧은 질문에 답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두꺼운 자료를 훑어보고 요점을 정리한 보고서까지 뽑아내는 수준이 됐다는 뜻이다.

요리사에 가까워요. 사용자는 저녁 준비해줘 정도만 말하면 되고, 재료 선택과 조리 순서, 플레이팅은 제품이 채워 넣는 거죠.

기존 AI 제품 다수가 한 번의 질문에 한 번의 답을 내놓는 방식이었다면, 에이전틱 제품은 목표를 향해 여러 단계를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해서 최종 결과물까지 만들어내요. 영상 제작 도구라면, 대사와 분위기만 말로 알려줘도 장면 구성과 촬영 각도, 편집까지 알아서 진행해 완성된 영상을 내놓는 식이에요.

팝콘

Popcorn

팝콘은 옥수수 알이 뜨거운 열을 받으면 순식간에 부풀어 오르는 간식이다. AI 업계에서는 아직 정식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모델이나 기능을 부를 때 이런 친근한 사물·음식 이름을 임시로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팝콘도 그런 코드네임 중 하나로 쓰인다.

코드네임은 회사 안팎에서 소문이나 유출을 통해 먼저 알려지곤 한다. 정식 출시 전까지는 실제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얼마나 크고 빠른 모델인지 확정된 정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코드네임 단계의 이름만으로 성능이나 용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기사에 이런 코드네임이 등장하면, 아직 베일에 싸인 프로젝트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게 안전하다. 정식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름이 주는 인상보다 실제 공개된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구음장애

dysarthria

구음장애란 생각과 단어는 온전한데, 그것을 소리로 만들어내는 입과 혀, 성대의 근육이나 신경에 문제가 생겨 발음이 뭉개지거나 느려지는 상태를 말한다.

라디오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다. 방송국에서 보내는 신호(하고 싶은 말)는 멀쩡한데, 안테나나 회선(말하는 데 쓰는 근육·신경)이 약해서 스피커로 나올 때는 지글거리는 잡음 섞인 소리로 들리는 것과 비슷하다. 뇌졸중이나 파킨슨병,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 신경계 질환, 사고로 인한 신경 손상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건 이게 언어 이해력이나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본인이 정확히 알고 있고 상대의 말도 그대로 알아듣는다. 다만 그 문장을 소리로 밀어내는 물리적인 과정이 삐걱거릴 뿐이다.

음향 와이어프레임

acoustic wireframe

음향 와이어프레임은 소리를 만드는 AI가 가장 먼저 그리는 뼈대를 뜻한다. 건축가가 벽지나 가구를 고르기 전에 기둥과 골조부터 세우듯, 목소리나 음악을 만드는 AI도 실제 음색을 입히기 전에 리듬이 어디서 강해지고 문장이 어디서 끊기는지 같은 큰 틀부터 잡아둔다.

뼈대를 먼저 만들어두면 두 가지가 쉬워진다. 하나는 수정이다. 완성된 소리를 처음부터 다시 뽑지 않고 뼈대만 손봐서 전체 느낌을 바꿀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일관성이다. 긴 노래나 음성 안에서 흐름이 갑자기 끊기지 않도록 미리 큰 그림을 잡아두는 셈이다.

이 말은 3차원 그래픽에서 형태의 골격만 선으로 그리는 와이어프레임이라는 개념을 소리에 빗댄 표현이다. 아직 업계에서 통일된 정의로 굳어진 전문 용어는 아니고, 소리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할 때 쓰이는 비유에 가깝다.

공간 음향

spatial audio

공간 음향은 소리에 방향과 거리감을 얹어서, 눈을 감고도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다.

비유하자면 콘서트장이나 영화관에서 앞뒤좌우 스피커가 소리를 나눠 쏘는 것과 비슷하다. 다만 공간 음향은 스피커 여러 대 없이 헤드폰 하나로 그 입체감을 만들어낸다.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원래 오른쪽에서 나던 소리가 상대적으로 왼쪽에서 들리도록 계산을 다시 하는 식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 소리 나는 공간 안에 서 있는 듯한 착각이 생긴다.

요즘은 화상회의나 가상현실, AI가 만든 아바타의 목소리에도 이 기술이 쓰인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할 때 목소리마다 다른 위치감을 줘서, 누가 어디서 말하는지 귀로 구분하기 쉽게 만드는 식이다.

휴먼 리저브드

Human Reserved

휴먼 리저브드는 AI로 대체하는 것을 아예 금지해 놓은 인간 전용 직업 영역을 뜻하는 말이다.

빌 게이츠가 자신의 에세이에서 자연보호구역에 빗대어 제안했어요. 자연보호구역은 개발이나 벌목을 법으로 막아 놓은 땅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돌봄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가 핵심인 일, 혹은 한번 그 일에서 밀려나면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사람들의 일을 'AI가 넘어오지 못하는 구역'으로 따로 정해 두자는 제안이에요.

이 개념은 AI가 몰고 올 일자리 충격이 이번엔 과거의 기술 혁신과 다르다는 게이츠의 진단에서 나왔어요. 그는 AI 연산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과 함께, 이 인간 전용 직군 지정을 대량 실직에 대응할 카드로 제시했어요. 아직 어느 나라에서 실제 법이나 제도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앞으로 논쟁거리가 될 아이디어 단계예요.

토큰세

token tax

토큰세란 AI가 일을 처리할 때마다 쓰는 토큰이라는 단위에 세금을 매기자는 아이디어다. 공장이 사람 대신 기계를 들여놓을 때 그 기계에 세금을 매겨서, 사람을 쓰는 것과 기계를 쓰는 것 사이의 비용 차이를 줄이는 상황을 떠올리면 된다.

빌 게이츠가 이 개념을 꺼낸 이유는 간단하다. 과거의 기술 혁신은 없앤 일자리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왔지만, 이번에는 AI가 여러 산업에 동시에 퍼지기 때문에 밀려난 사람을 받아 줄 다른 산업이 남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AI를 쓰는 쪽이 무조건 싸지만은 않게 만들고, 걷힌 세금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자는 구상이다.

게이츠는 술이나 담배에 붙는 세금과 비슷한 구조가 될 수 있다며, 토큰 판매 매출의 절반 정도를 정부가 가져가는 식의 예를 들었다. 아직 실제로 시행 중인 세금이 아니라 논의 단계의 제안일 뿐이다.

학생 데이터 프라이버시 컨소시엄

Student Data Privacy Consortium

학생 데이터 프라이버시 컨소시엄은 학교가 새 기술 도구를 들일 때마다 반복해야 했던 데이터 처리 협상을 표준 양식 하나로 정리해 주는 미국의 협의체예요. 원래는 학군 하나하나가 업체와 개별적으로 계약서를 만들어야 했는데, 이 컨소시엄이 만든 공통 계약 틀을 쓰면 여러 학군이 같은 조건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어요.

비유하자면 이사할 때마다 매번 새로 쓰는 임대 계약서 대신, 지역 전체가 합의한 표준 계약서 양식이 있는 것과 비슷해요. 조건을 처음부터 다시 따지지 않아도 되니, 학교는 도구 도입 여부를 더 빨리 결정할 수 있고 업체 입장에서도 학군마다 다른 조건을 일일이 맞출 필요가 없어져요.

이 틀 자체가 개인정보를 지켜주는 마법 도구는 아니에요. 어떤 데이터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학습에 활용해도 되는지 등 실제 조건은 그 표준 계약서 안에 무엇이 담겼는지에 달려 있어요.

K-12 에듀케이터 플러그인